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주행위와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업태만행위의 매개효과*

전재은(田才恩)**

신윤정(申允廷)***

김희연(金嬉妍)****

논문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행위와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태만행위를 매개로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음주, 학업자기효능감, 학업태만행위, 학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며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남녀 대학생 집단 간 학업태만행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매개효과 정도에는 성차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녀 집단 모두 음주행위의 증가는 학업태만행위를 증가시키고, 학업태만행위는 학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학업자기효능감 증진은 학업태만행위의 감소로 이어지고, 또 직접적으로 학업성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로는 여자대학생은 남자대학생에 비해서 학업자기효능감이 클수록 학업태만행위를 덜 하고, 음주량과 빈도가 증가할수록 학업태만행위가 증가하는 정도도 적었다. 그러나 여학생이 학업태만행위를 할수록 학업성과가 저하되는 부정적 영향은 남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음주행위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학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 기제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대학생 음주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대학기관과 정부는 음주가 학업성과에 간접적이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순기능의 책임감 있는 음주를 위한 지도 및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대학생, 음주, 학업성과, 성차, 학업태만, 학업자기효능감

* 2014년 제8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

** 제1저자.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상담전공 부교수, yshin@uos.ac.kr

**** 고려대학교 석사졸업

I. 서론

최근 국내 고등교육에서 대학생의 학습과정, 학업성과, 핵심역량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장완, 김현진, 김명숙, 2011; 고장완, 박수미, 유현숙, 2014; 배상훈, 김혜정, 2012, 2013; 변기용 외, 2014a, 2014b, 2014c, 2014d, 2014e; 유현숙 외, 2010, 2011, 2012; 진미석, 2013). 이는 고등교육 질에 대한 책무성의 강조와 함께 대학평가의 패러다임이 성과 중심으로 변화하고, 고등교육 관련 정책 또한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장완 외, 2014).

국내 고등교육에서 이러한 대학생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한국의 대학문화와 대학생활의 특징을 고려하는 것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중요하며, 그 가운데서 대학생 음주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해마다 언론에 대학생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보도되고,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축제 기간에는 더욱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대학생 음주 관련 사고가 교통사고, 성폭행, 추락 및 익사사고, 기물파괴부터 사망사고까지 해마다 잇따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김광기, 장승욱, 제갈정, 2006; 보건복지부, 2011; 최성욱, 2014). 전국 대학생 음주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63개 대학 4천여 명 가운데 음주자와 폭음자의 분포가 각각 85.4%와 71.2%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제갈정, 2011). 이러한 대학생 음주 문제에 대해 2012년 9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학 캠퍼스를 음주 및 주류판매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안에 대해 여러 번 입법 예고를 시도했고 2015년 3월 내 재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손현경, 2015). 또 대한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파랑새포럼 사업을 운영하고, 대학 절주동아리와 음주폐해예방 대학생기자단을 지원하는 등 음주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대한보건협회 홈페이지). 그러나 과거 정부의 음주문제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김지선, 이재경, 정슬기, 2013), 여전히 대학생 음주문화는 신입생 환영회나 사교적 목적을 위해 관례화되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학생 음주에 대해 국내 선행연구는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폭음에 미치는 여러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김광기 외, 2006; 양난미, 2009, 2010; 윤명숙, 이효선, 2012; 이정훈, 양난미, 이명신, 2013; 이선영, 정의철, 2012; 이지현, 최홍일, 2010; 천성수 외, 2003; 홍다솜, 양난미, 2013). 또한 대학생 음주연구에서는 대학생 성별에 따라 음주행위와 영향 요인이 다른 것으로 밝혀져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류미, 이민규, 신희천, 2010; 서경현, 양승애, 2011; 양난미, 2010; 이선영, 정의철, 2012; 정슬기, 2007; 정원철, 2006; 천성수 외, 2003;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 2002).

그러나 대학생 음주연구는 음주실태 조사 및 영향요인 연구에서 나아가 대학생 음주가 구체

적으로 학업성과와 같은 중요한 대학교육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증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국 60개 대학의 대학생 음주를 조사한 연구에서 음주 때문에 수업을 가지 않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대학생은 각각 42.9%와 3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성수 외, 2003). 또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음주·폭음은 학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scarella et al., 2007; Powell, Williams, & Wechsler, 2004; Rau & Durand, 2000; Wolaver, 2002). 미국의 대학생 음주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음주가 학업성과에 직접적으로 또는 학습시간 감소라는 변인을 매개로 학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음주와 학업 간 부정적 관계에 대해 밝힌 바 있지만, 그 관련성만을 확인한 것이어서 구체적 영향기제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강승호, 2010; 김소진 외, 2012; 양정수, 황부근, 김차용, 2003; 정원철, 2006). 또 주로 한 개의 대학기관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의 대학생에 대해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내 고등교육에서 대학생의 음주행위가 학업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 구체적 영향기제를 밝힘으로써, 대학생 음주와 관련한 예방 프로그램 마련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업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대표적 심리학적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혹은 확신을 의미하는데(Bandura, 1977), 이러한 자기효능감이 특정 과업을 선택, 수행하고, 일정 수준의 수행을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등의 일련의 수행과정에 주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은 많이 보고된 바 있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rtorelli, 1996; Chemers, Hu, & Garcia, 2001; Choi, 2005). 학업 성과의 경우, 학업 특정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학업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보다 상위 과제에 도전하려는 열정을 갖도록 돕고, 이것이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개인 내적 변인이 된다. 대학생의 경우 개인별 자기효능감의 수준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Choi, 2005; Zajacove, Lynch, & Espenshade, 2005). 따라서, 이러한 학업자기효능감을 지속, 유지시키는 것이 고등교육 내에서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추수지도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Campbell & Campbell, 1997; Kitsantas, 2013; Terry & Doolittle, 2008). 그러므로 대학생 학업 성과를 연구할 때 학업관련 자기효능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국내 대학생 음주는 관련 문제와 폐해가 심각하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학업성과라는 대학교육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영향기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학업성과 연구를 위해 학업관련 자기효능감과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여러 유형의 대학 기관에 속한 대학생이 포함된 한국교육중단연구조

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학업자기효능감과 더불어 대학생의 음주행위가 학업성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대학생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성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과란 평균학점(GPA)을 사용한 학업 성취도로 정의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음주행위, 자기효능감이 평균학점(GPA)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앞으로 국내 대학기관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업자기효능감을 유지시킬 수 있는 추수지도 방안 및 대학생 음주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구체적 프로그램 방향을 설정하고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분석

1. 대학생 음주와 학업성과

한국 대학생의 음주는 전체 음주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도 높고, 폭음 또는 고위험 음주자의 비율 또한 높다(송미경, 2013; 양난미, 2010; 제갈정, 2011). 수시 폭음자의 경우, 음주는 대학 생활의 일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양난미, 송영이, 2013). 이러한 대학생의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음주 관련 문제행위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실태조사나 음주동기 및 음주문제, 폭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는데 집중한 경향을 보인다(김광기 외, 2006; 양난미, 2009, 2010; 윤명숙, 이효선, 2012; 이정훈, 양난미, 이명신, 2013; 이선영, 정의철, 2012; 이지현, 최홍일, 2010; 천성수 외, 2003; 홍다솜, 양난미, 2013). 대학생 음주 문제는 이와 더불어 학업성과와 같은 중요한 대학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음주는 대학생활 적응과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이영미, 정문희, 荒木田美香子, 2008), 학업성적이 낮은 것과 문제성 음주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정원철, 2006).

그 중에서도 음주가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은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양정수, 황부근, 김차영의 연구(2003)에서 대학생의 음주횟수 증가는 학업성적과 부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음주량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잦은 술자리가 문제이지 적당한 사교적 음주는 학업성적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였다. 대학생 학업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한 다른 연구에서는 음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지만, 흡연, 음주,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대한 변인들 가운데 음주만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또 부정적 관계임을 보여주었다(강승호, 2010). 이 밖에 김소진 외(2012) 등의 연구가 있지만, 모두 지방 소재 한 개의 대학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와 같은 음주와 학업 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대표성을 지닌 표집을 사용하여, 대학생의 음주량 및 음주빈도가 학업성과에 대한 부정적 결정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Engs, Hanson, & Diebold, 1996; Pascarella et al., 2007; Powell et al., 2004; Wolaver, 2002).

2. 학업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

학업자기효능감이란 학업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학업과제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행동들을 조직, 실행해 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혹은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77 참고). 학업자기효능감은 음주행위 못지않게, 학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이다(김소희, 한정선, 2007; 손성희, 전나영, 황정일, 2012). 학업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움이 닥쳐도 책임감 있고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학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낮으며, 높은 효과적인 시간관리 능력을 비롯하여 학습 전략 구사 등 우수한 자기조절능력을 보인다(권재환, 김경희, 2013; Chemers, Hu, & Garcia, 2001). 반면, 학업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습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가 실제보다 어렵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어려운 과제는 회피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나 노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Bandura et al., 2001).

학업자기효능감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학업성취 능력 및 지속 등 학생들의 적응적 행동을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 중 하나로 보고되어 왔다(신종호, 신태섭, 2006;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Bandura et al., 2001; Chemers et al., 2001). Multon, Brown 과 Lent(1991)의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업수행의 14% 정도를 학업자기효능감이 설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신종호와 신태섭(2006) 및 안도희, 김지아와 황숙영(2005)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 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학업자기효능감이 개인의 내적변인으로서 특정 행동 선택, 노력의 양, 과제에 대한 지속력, 사고의 내용 및 정서적 반응 등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Bandura, 1977), 음주행위라는 대학생의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적인 변인과 더불어 개인 내적 변인인 학업자기효능감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학업태만행위와 학업성과

대학생 음주와 학업성과에 대한 해외 선행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음주로 인한 학업 시간 감소

가 학업성과 저하로 이어지는 관계를 검증한 부분이다(Rau & Durand, 2000; Williams, Powell, & Wechsler, 2003; Wolaver, 2002). 예를 들어, Rau와 Durand는 공부습관과 음주빈도를 학문적 윤리라는 변인으로 개념화하여 고등학교 등급 및 성적과 대학 평점을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음주는 수업에 빠지거나 뒤쳐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owell et al., 200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Pascarella 외(2007)는 학습시간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음주행위의 학업성과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는 다른 선행연구와 상반되게 학습 및 수업 준비시간이 음주와 학업 간 관계를 매개하지 않고, 음주가 이와 상관없이 학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대학생 음주는 단순히 학습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시간 활용의 효율성 및 인지적 기능을 저하시킴에 따라 학업성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 및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는 단순한 학습시간보다는 학업지장, 즉, 수업 빼먹음, 학업 따라가지 못함 등(천성수 외, 2003)과 같은 학업태만행위를 매개변인으로 포함시켜 조사해보고자 한다.

또 이러한 학업태만행위는 학업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학업자기효능감과 성공적 학업 성과는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andura et al., 1996; Greene et al., 2004; Zimmerman, 1995). 하지만, 무엇이 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 간 관계를 매개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Bandura et al., 1996). 기존의 몇 안 되는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학업 관련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학생들은 더욱 학업관련 과제에 소홀히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 중도 탈락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문제 행동들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학업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고 되어 왔다(Bandura, 1997; Bandura et al., 1996; 2001). 이에 더하여 Carroll과 그의 동료들(2009)도 호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학업태만 행위를 비롯하여 친구에게 보이는 공격성 등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여러 문제 행동들이 학업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 간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4. 성별에 따른 차이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을 때, 대학생 음주, 학업자기효능감, 그리고 학업성과에 대한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생 음주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특히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을 강조하였다(류미 외, 2010; 양난미, 2010; 정슬기, 2007; 정원철, 2006).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시·상습 폭음자 비율이 높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

는 경향이 있다(천성수 외, 2003). 그런데도 남녀대학생간 음주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에 차이가 없고, 여대생이 취하는 정도가 더 빈번하다는 점에서 여대생 음주문제 심각하게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양난미, 2009, 2010; 정슬기, 2007). 여성은 체지방, 수분, 호르몬과 같은 신체적 특성상 같은 양의 알코올이라도 남성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쉽게 취하며, 음주로 인한 정신, 육체적 피해가 더 빠르고 다양할 수 있다(전경숙, 이효영, 2010; Holmila & Kirsimarja, 2005; Mumenthaler, Taylor, O'Hara, & Yesavage, 1999; Nolen-Hoeksema, 2004). 또 선행연구에서 남녀에 따라 대학생의 성격, 음주동기, 문제성 음주태도, 스트레스, 친구 영향 등의 영향요인이 음주문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경현, 양승애, 2011; 양난미, 2010; 이선영, 정의철, 2012; 정슬기, 2007; 천성수 외, 2003;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 2002).

이에 더하여, 학업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도 함께 보고자 한다. 과거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학업자기효능감에서 남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5; Jonson-Reid et al., 2005). 하지만, 구체적인 학업영역과 관련된 학업자기효능감의 경우, 반대로 남학생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수학적 자체에서는 성차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관련 자기효능감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Lloyd, Walsh, & Yailagh, 2005). 대학생의 학업성과에 대한 성별 차이는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Peters, 2013; Voyer & Voyer,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1학년에 국한되거나 4년 재학기간 동안 지속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idgeman & Wendler, 1991; Conger & Long, 2008; DeBerard, Spielmans, & Julka, 2004). 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과목에 따라 각각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것으로도 나타났다(Keller, Crouse, & Trusheim, 1993).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 학업성과에 대한 성별 차이가 아직 분명히 밝혀진 바가 없지만(신현종, 2012), 본 연구에서도 성별 차이를 분석하여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음주행위 및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8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교육종단연구(KELS)는 층화군집추출법을 사용하여 150개의 중학교에서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학생 6,908명을 표집하고 만 30세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종단 연구조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관심

대상인 대학생의 음주행위와 학습참여를 살펴보기 위하여, 8차년도 자료 중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의 자료를 선정하였다. 2-3년제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학습경험이 4년제 대학 학생과는 다를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대학 재학생 중에서도 취업자와 진학준비자는 직장생활과 진학준비로 인해 학습참여정도와 음주빈도가 일반 재학생들과 다를 것으로 여겨져 이들을 제외하고 1,756명의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 중 상당수의 결측치를 포함한 2개의 사례를 제외하고 1,754개의 최종 표본이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남학생이 542명(31%), 여학생이 1,212명(69%)이며, 2학년이 1374명(78.3%)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374명(21.3%), 3학년이 4명(0.2%)이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열이 749명(42.7%)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공학계열이 574명(32.7%), 예체능계열 197명(11.2%) 순이었다.

2. 연구변인

상술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대학생의 음주행위와 학업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들을 설정하였다.

1) 학업자기효능감

학업자기효능감 요인은 책임감, 학업능력, 시간관리능력(귀하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음 사항에 대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학업능력, 시간관리능력)의 총 3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낮다, 5점: 매우 높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65의 내적 합치도를 나타냈다.

2) 음주행위

대학생들의 음주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량과 빈도를 동시에 측정한 1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지난 1년 동안 다음 날 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음주행위 변인은 1(없음), 2(6개월에 1~2회), 3(한 달에 1~2회), 4(일주일에 1~2회), 5(일주일에 3회 이상)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음을 한 횟수가 많은 것을 나타낸다.

3) 학업태만행위

학업태만행위는 한국교육종단연구의 학업태만행위 요인으로 구성된 척도들을 문항결합(i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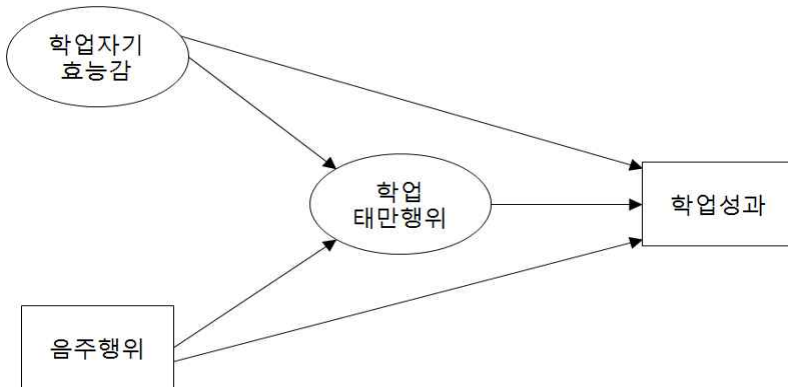
parceling)하여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결합에는 주축요인분석과 사각회전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하위요인별로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측정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1요인은 '수업 중 몰래 음악을 듣는다',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해 준 과제를 제출한다', '대리출석을 부탁한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72의 신뢰도를 보였다. 2요인은 수업태도와 관련된 '수업시간에 졸거나 잠을 잔다',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잡담을 한다',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계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수업시간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채팅을 한다'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762였다. 마지막으로 3요인은 '이유없이 수업을 빠진다', '지각을 한다', '과제물을 늦게 제출한다'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759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변인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태만행위가 심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4) 학업성과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점 평균(GPA)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활용하였다. 대학 입학 후 지난 1년간의 학업성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8차년도 자료에서 제공된 2011년 2학기 평점과 2012학년 1학기 평점을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3. 연구모형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1] 연구 모형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과 AMOS 18.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SPSS 18.0을 사용하여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과 결측치를 점검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수행하려면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이 차례로 성립되어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이에 각 집단의 형태동일성을 검토하고, 모든 잠재변인의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학습자기효능감과 음주행위 변인에서 학업성과에 이르는 경로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방법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계수차이검증을 실시하여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χ^2 와 CFI, RMSEA, TLI와 같은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할 때에는 표본크기에 민감한 χ^2 대신 CFI, RMSEA, TLI 지수들을 확인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시 내재된(nested) 모형끼리 비교할 때에는 χ^2 차이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각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수들이 왜도의 절대값이 3.0 미만, 첨도의 절대값이 7.0 미만으로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Kline, 2011). 따라서 이 기준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정상성 가정이 충족되어 최대 우도법(ML)을 통한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기술통계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업자기효능감	학업능력	3.36	.69	.008	.174
	책임감	3.73	.74	-.199	.113
	시간관리능력	3.15	.84	-.005	.015
학업태만행위	요인1	1.32	.42	1.798	4.068
	요인2	2.48	.72	.021	-.283
	요인3	1.88	.73	.761	.352
음주행위	1.91	.95	.888	.364	
학업성과	76.01	12.94	-1.121	2.649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학업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은 학업태만행위의 하위변인, 음주행위와 부적 상관을 가지며, 학업성과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태만행위는 음주행위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학업성과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음주행위는 학업성과와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지지되었다.

<표 2>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1	1							
2	.36**	1						
3	.34**	.45**	1					
4	-.23**	-.22**	-.32**	1				
5	-.18**	-.14**	-.19**	.40**	1			
6	-.18**	-.18**	-.15**	.43**	.40**	1		
7	-.06**	-.07**	-.07**	.29**	.26**	.26**	1	
8	.35**	.17**	.20**	-.47**	-.20**	-.23**	-.21**	1

주. 1= 책임감, 2=학업능력, 3=시간관리능력, 4= 문항결합으로 생성한 학업태만행위의 하위변인1, 5=문항결합으로 생성한 학업태만행위 하위변인2, 6=문항결합으로 생성한 학업태만행위 하위변인3, 7=음주행위, 8= 학업성과.

p* < .05, p** < .01

2. 구조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에 있어서, 우선 남녀집단 각각의 측정모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학생 집단의 경우, $\chi^2(16)=$

88.657, $p < .001$, TLI = .844, CFI = .911, RMSEA = .092(90% CI: .074 .111), 여학생 집단의 경우, $\chi^2(16) = 176.741$, $p < .001$, TLI = .840, CFI = .909, RMSEA = .091(90% CI: .079 .103)으로 TLI, CF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고려할 때, 측정모형이 각 집단마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형태동일성 검증 결과, $\chi^2(32) = 265.405$, $p < .001$, TLI = .841, CFI = .909, RMSEA = .065(90% CI: .057 .072)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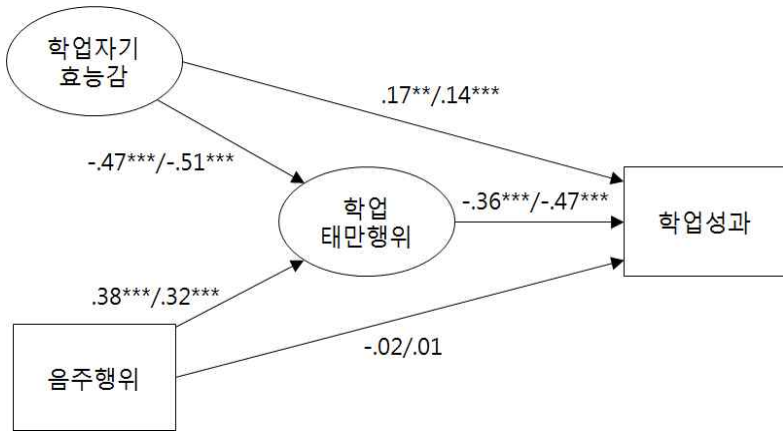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남녀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이 차례로 성립되어야 한다(Hong et al., 2003). 각 단계에서 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할 때에는 χ^2 차이검증 결과와 더불어 적합도 지수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형태동일성이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다음 단계인 측정동일성 모형을 검증하였다.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측정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hi^2(36) = 278.267$, $p < .001$, TLI = .854, CFI = .906, RMSEA = .062(90% CI: .055 .069)로 χ^2 차이검증 결과 기각되었다. 이에 각 잠재변인별로 두 개의 측정변인만을 동일하게 고정한 부분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chi^2(34) = 270.478$, $p < .001$, TLI = .849, CFI = .908, RMSEA = .063(90% CI: .056 .070)로 동일성이 성립하였다. 부분측정동일성모형이 성립할 경우 두 집단 간의 구조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최희철 외, 2009). 부분측정동일성모형에서의 각 집단별 경로계수는 <표3>에 제시하였다.

<표 3> 남녀학생 집단별 모수 추정치(부분측정동일성 모형)

모수	남학생		여학생	
	b (S.E.)	β	b (S.E.)	β
학업자기효능감 → 학업태만행위	-.374*** (.056)	-.467	-.260*** (.026)	-.510
학업자기효능감 → 학업성과	6.587** (2.552)	.172	4.276*** (1.337)	.142
음주행위 → 학업태만행위	.109*** (.014)	.378	.072*** (.008)	.315
음주행위 → 학업성과	-.288 (.643)	-.021	.181 (.413)	.013
학업태만행위 → 학업성과	-16.963*** (3.361)	-.356	-27.630*** (3.149)	-.467

주. $p^* < .05$, $p^{**} < .01$, $p^{***} < .001$

다음으로 각 집단에서 음주행위와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직·간접효과와 더불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고). 첫째, 학업자기효능감과 GPA 간의 문제행위의 매개효과는 남학생 집단에서 95% 신뢰구간이 .112~.240의 범위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학생 집단에서 학업자기효능감이 문제행위를 거쳐 GPA에 이르는 경로 또한 95% 신뢰구간이 .190에서 .303으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음주여부 및 정도와 GPA간의 관계에서 문제행위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남학생 집단에서 -.201에서 -.082, 여학생 집단에서 -.204에서 -.109으로 .05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림 2] 측정모형 추정결과

주. 좌: 남학생 집단 경로계수, 우: 여학생 집단 경로계수.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표 4> 학업자기효능감과 음주행위가 학업성과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검증

효과	경로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β (S.E.)	BC 95% CI	β (S.E.)	BC 95% CI
간접 효과	학업자기효능감 → 학업성과	.166 (.039)	(.112,.240)	.238 (.033)	(.190,.303)
	음주행위 → 학업성과	-.135 (.036)	(-.201,-.082)	-.147 (.027)	(-.204,-.109)
직접 효과	학업자기효능감 → 학업성과	.172 (.067)	(.069,.303)	.142 (.056)	(.046,.244)
	음주행위 → 학업성과	-.021 (.049)	(-.091,.076)	.013 (.029)	(-.046,.055)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각 경로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구조동일성의 사전가정인 형태동일성과 부분측정동일성이 성립하므로, 계수차이 비교 검증방법(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 test)을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가 적은 계수부터 동일화 제약을 가하였다(홍세희, 2013). 이 방법은 측정동일성 모형에서 경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하나씩 추가하며 직전 모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모형을 찾는 방법이다. 모형비교에는 χ^2 차이검증과 적합도지수(RMSEA, TLI)를 이용하였으며, 경로에 제약을 강화하여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거나 χ^2 차이값이 임계치보다 크지 않으면 동일성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화 제약을 계속 추가한 결과, 학업자기효능감에서 학업태만 행위에 이르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제약한 모형이 구조동일성을 기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 \chi^2(1)=4.507, p<.05$). 이에 따라 바로 앞 단계의 모형인 학업자기효능감에서 학업성과, 음주에서 학업성과에 이르는 경로들을 제약한 구조동일성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동일화 제약을 가한 학업자기효능감에서 학업성과, 음주에서 학업성과에 이르는 경로들은 남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며, 그 외의 경로들에 대해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경로들인 학업자기효능감에서 학업태만행위, 음주행위에서 학업태만행위, 학업태만행위에서 학업성과에 이르는 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집단간 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RMSEA	TLI	판정
형태동일성 모형	265.405	32	.065	.841	채택
부분측정동일성 모형	270.478	34	.063	.849	채택
음주→ 학업성과 경로 제약 모형	270.857	35	.062	.853	채택
학업자기효능감 → 학업성과 경로 제약 모형	271.300	36	.061	.858	채택
학업자기효능감→ 학업태만행위 경로 제약 모형	275.807	37	.061	.860	기각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음주행위 및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는 것으로서, 학업태만행위의 매개변인 역할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 성별에 따른 대학생 음주, 학업성과, 학업태만행위, 학업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학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태만행위 정도가 낮아지고, 학업태만행위의 감소는 학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두 집단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자기효능감이 학업성과의 강력한 원인이 되는 선행 변인이라고 밝힌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신종호, 신태섭, 2006; 안도희 외, 2005; Bandura et al., 2001; Chemers et al., 2001). 또한, 학업태만행동의 매개효과는 학업 관련 문제 행동들이 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한 과거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Bandura et al., 1996; Carroll et al., 2009). 즉, 대학생의 학업자기효능감은 학업성과 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태만행위 감소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업성과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남녀 집단 모두 동일하게 음주행위는 학업성과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학업태만행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는 음주와 학업성과 간의 관계는 매개변인을 고려해야한다는 기존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Pascarella et al., 2007; Rau & Durand, 2000; Williams et al., 2003; Wolaver, 2002). 또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시간 감소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태만행위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였다. 다시 말해, 음주행위 자체가 대학생의 학점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음주행위로 인한 학업태만행위-대리출석, 부정행위 등 학업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거나,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 짓을 하는 등 수업을 받는 태도가 불성실해지며, 수업참여와 출결 미흡 및 과제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는 등 학업 전반적 태도가 불성실해지는 점-으로 인해 학점을 잘 못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학업태만행위의 매개효과는 해외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학습시간의 매개효과보다 음주가 대학생 학업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음주행위가 단순한 대학생 학습시간의 감소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업관련 부정적 태도 및 행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는 직장인의 음주행위가 근무태만, 업무집중부족, 결근, 동료와의 다툼 등 반생산적인 업무행동을 초래하며, 이는 개인을 포함하여 조직의 업무성과에도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직장인의 음주문제행위에 대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볼 수 있다(김대수, 2013; 이재훈, 김대수, 2013).

셋째, 남녀 집단 모두 학업태만행위가 학업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의 관계 그리고 음주행위와 학업성과 간의 관계를 모두 매개하는 점은 동일하나, 그 관계의 강도에는 차이를 보였다(<표

3> 참고).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학업자기효능감이 클수록 학업태만행위를 덜 하고, 음주량과 빈도가 증가할수록 학업태만행위가 증가하는 정도도 적었다. 그러나 여학생이 학업태만행위를 할수록 학업성과가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은 남학생보다 더 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표 3> 참고). 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태만행위를 하면 학업성과가 떨어지는 것이 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지는 구조방정식모형 결과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각 변인들의 평균값에 대해 남녀 차이를 살펴보면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학업태만행위의 경우,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1.91, 여학생은 1.80으로, 남학생 집단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다($p < .001$). 반면, 학업성과, 즉, 평균 학점의 경우 남학생은 72.26, 여학생은 77.68로 여학생의 성적 평균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 < .001$). 즉, 남학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여학생보다 학업태만행위는 더 많이 하고, 학업성과, 즉 성적은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남학생 집단에게 학업태만행위의 학업성과에 대한 영향력, 즉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여학생 집단보다 약한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서 또 다른 설명으로는 대학생 음주에 대해 남녀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주 및 음주문제 빈도는 더 높더라도 여학생이 음주문제에 더 취약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음을 강조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양난미, 2009, 2010; 전경숙, 이효영, 2010; 정슬기, 200; Holmila & Kirsimarja, 2005; Mumenthaler et al., 1999; Nolen-Hoeksema, 2004). 즉, 선행연구에 따르면, 남학생이 음주빈도와 음주문제 정도는 더 크지만, 남녀 대학생간 음주문제의 경험 비율에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더 쉽게 그리고 빈번히 취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여학생은 신체적 특성상 음주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위협에 더 빠르게 노출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Holmila & Kirsimarja, 2005; Mumenthaler et al., 1999; Nolen-Hoeksema,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여학생에게 남학생보다 음주가 학업태만행위를 매개로 하여 학업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계가 더 크다고 나타난 것도 여학생의 음주폐해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 음주가 성별에 따라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서경현, 양승애, 2011; 양난미, 2010; 이선영, 정의철, 2012; 정슬기, 2007; 천성수 외, 2003; 최명숙 외, 2002). 우선 음주행위가 학업태만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하였고, 학업태만행위의 유의미한 매개효과 유무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매개효과의 정도에는 성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정도 관계에서 예방행동전략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기존 연구의 결과(홍다솜, 양난미, 2013)와 동일하게 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자체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방행동전략 사용에 성차가 존재한 것과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녀 집단 간 학업자기효능감과 학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학업태만행위의 매개효과를 비교해보면, 남학생

의 경우 학업태만 행위가 학업성과의 약 17%를 설명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약 24%를 설명하였다. 음주와 학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학업태만행위의 매개효과 또한, 남학생의 경우는 학업태만행위가 학업성과의 13.7%, 여학생의 경우는 15%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여학생 집단에서 학업태만행위의 매개효과가 남학생보다 더 크다는 연구결과는 여학생들의 학업태만행위에 대한 중재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처럼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업자기효능감 및 음주행위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학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기제를 검증한데 주요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음주는 간접적이지만 학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 음주의 여러 가지 폐해와 학업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앞선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강승호, 2010; 김광기 외, 2006; 김소진 외, 2012; 양정수 외, 2003; 이지현, 최홍일, 2010; 천성수 외,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업에 대한 음주의 부정적 영향이 학업태만행위를 통해 거의 완전 매개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대학기관과 정부는 대학생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학업태만행위를 통해 낮은 학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음주습관은 자기관리능력 향상의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지양해야 하는 생활방식임을 교육시키고, 더 나아가 음주정도를 비롯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및 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에게 음주는 대학 입학 후 적응과 사교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대학생 또는 성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자유로 당연시되거나, 소속 학과 또는 대학의 중요한 문화로 거절 내지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일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및 대학은 대학생의 음주행위가 수업과 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고 학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이러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순기능의 책임감 있는 음주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여러 대학이 교내 금주 정책, 금주금연클리닉, 술 없는 신입생 환영회나 축제 등 절주와 금주를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박수현, 2014; 방종임, 2015; 이정복, 2014; 이종익, 2013; 최인진, 2013). 최근 서울대학교의 신입생 위험음주군 비율 조사에서도 건의된 바와 같이, 음주 가이드라인 보급, 교내 주류에 대한 접근성 최소화, 공공기관·지역사회와 협조체계 구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박현우, 2014). 그리고 이러한 대학기관과 공공기관 등의 대학생 음주에 대한 지도방안을 마련할 때, 음주와 학업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학업코칭 및 상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음주 행위와 문화는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이어질 가능성과 위험이 높으므로(이선영, 정의철, 2012; 홍다솜, 양난미, 2013), 대학 기관과 정부는 이러한 대학생 음주 관련 정책을 시급히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대학생 음주 가운데서도 폭음과 학업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폭음이란

지난 2주 내지 한 달간 한 자리에서 5잔(여성은 4잔) 술을 마신 날이 1회 또는 5회 이상, 즉, 여러 회인 경우로 정의할 수 있다(Wechsler, Dowdall, Davenport, & Castillo, 1995; Wechsler & Nelson, 2001; 이지현, 최홍일, 2010). 그러나 한국교육중단연구 설문지에 포함된 음주에 대한 문항은 이러한 폭음에 대한 정의에 기반하여 작성되지 않았고, 또 음주량이나 음주빈도 중 어느 쪽도 명확히 측정하기에도 어렵다. 음주 행위 가운데서도 폭음(binge drinking)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대학생 음주와 학업성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대학생 폭음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예를 들어, Chaloupka & Wechsler, 1996; Pascarella et al., 2007; Wechsler, et al., 1995 ; Whatley, 2005). 둘째,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학생은 대부분 대학교 1, 2학년이어서, 학년에 따라 음주행위나 학업성과와의 관계가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향후 대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대학 재학 중 어느 단계에서 대학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Pascarella 외 (2007)에서는 저학년과 고학년 사이에 음주행위의 학업성과에 대한 부정적 영향 관계가 거의 동일함으로, 이른 시기에 개입할 수록 좋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1학년일 때는 학교 적응과 신입생으로서의 통관의례로서 사교적 음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과 취업준비 등을 위해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저학년은 선후배 관계 등으로 음주를 거절,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생 음주문화는 미국의 경우와 다를 수 있으며, 학년별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외에, 주요 변인들인 음주행위, 학업자기효능감, 및 태만 행위 등이 학업성과에 미치는 상대적인 기여도 및 성별에 따른 기여 요인의 차이 등을 분석,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떤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학업성과를 설명할 때 상대적인 설명력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종단 자료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에 따른 초기치와 변화치 변인을 사용한 연구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종단 연구 자료의 강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반복 측정된 변인들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계열성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종단 연구 설계를 통한 대학생 음주 행위가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장완, 김현진, 김명숙(2011). 대학생의 학습 및 비학습 경험이 인지적·정의적 성과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9(4), 169-194.
- 고장완, 박수미, 유현숙(2014). 대학생의 학습성과와 대학특성 및 학습과정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 41(1), 167-195.
- 권재환, 김경희(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5, 31-58.
- 강승호(2010). 대학생의 학업성취와 중도탈락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평가연구**, 23(1), 29-53.
- 김광기, 장승옥, 제갈정(2006). 대학교의 환경적 특성이 음주폐해에 미친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3(3), 65-83.
- 김대수(2013). 직장인 음주행위의 선행변수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김소진, 곽현정, 권원미, 김담비, 김은, 김인희, 문선화, 박다영, 조선희(2012). 대학생의 음주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12(10), 261.
- 김소희, 한정선(2007).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성격유형, 자기주도성,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간의 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2), 79-106.
- 김지선, 이재경, 정슬기(2013). 문제음주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경향 메타분석: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2), 1-18.
- 대한보건협회. <http://www.kpha.or.kr>
- 류미, 이민규, 신희천(2010). 대학생의 폭음 관련 사회인지적 요인과 음주 정도의 관계: 지각된 음주규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6(1), 63-79.
- 박수현(2014, 1, 3). '건강한 캠퍼스'로 '학격(學格)' 높이기 나선 대학가. 한국대학신문.
- 박현우(2014, 4, 1). 서울대 새내기 여학생 5명 중 1명 '위험음주군'. 뉴스1코리아.
- 방종임(2015, 3, 25). 대학 미래를 말한다. 인성이 경쟁력...금연·금주·노작교육까지. 조선일보.
- 배상훈, 김혜정(2012). 대학생의 학습참여(Student Engagement) 측정 모델의 타당성 검증. **교육행정학연구**, 30(1), 503-527.
- 배상훈, 김혜정(2013). 대학의 학업지원, 교수-학생 교류, 능동적·협동적 학습 및 학업도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열린교육연구**, 21(4), 201-225.
- 변기용 외(2014a).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 건양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

- 서.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변기용 외(2014b).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 대구카톨릭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변기용 외(2014c).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 포항공과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변기용 외(2014d).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사례 연구 보고서**.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변기용 외(2014e). **학부교육 우수대학의 특성 및 성공요인 분석 I: 한동대학교 사례 연구보고서**. 고려대학교 고등교육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1). 음주사고 없는 “알코올 클린 캠퍼스” 만들기. 보도자료.
- 서경현, 양승애(2011). 대학생 스트레스원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음주의 역할. **청소년학연구**, 18(11), 331-352.
- 손성희, 전나영, 황정일(2012). 한국어 학습자의 귀인성향,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 관계분석. **한국어교육**, 23(2), 171-189.
- 송미경(2013). 대학생의 분노, 소외감이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행동활성화체계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36, 60-83.
- 신중호, 신태섭(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한국아동교육학회:아동교육**, 15(1), 5-23.
- 신현중(2012). 대학생의 성별 및 대학입학유형이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2005). 초, 중,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탐색: 유능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학교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4), 1199-1217.
- 양난미(2009). 대학생 문제음주와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특성분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0(4), 2539-2554.
- 양난미(2010). 성, 음주정도에 따른 대학생의 음주문제 이해. **상담학연구**, 11(4), 1707-1727.
- 양난미, 송영이(2013). 심각한 수시 폭음을 하는 대학생의 음주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5(1), 83-109.
- 양정수, 황부근, 김차용(2003). 대학생의 음주와 운동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지**, 20, 645-657.
- 유현숙, 임후남, 최정운, 여승수,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 (I)**.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임후남, 서영인, 고장완, 신현석, 박승호(2011).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 (II)**. 한국교육개발원.

- 유현숙, 임후남, 최정윤, 서영인, 신현석, 고장완(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 (III)**. 한국교육개발원.
- 윤명숙, 이효선(2012). 대학생의 우울,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문제음주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9(3), 109-137.
- 이선영, 정의철(2012). 대학생의 문제성 음주의도 및 예방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 관여도, 대인커뮤니케이션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379-477.
- 이영미, 정문희, 荒木田美香子(2008). 대학생의 인구학적 요인과 음주정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5(2), 250-256.
- 이재훈, 김대수(2013). 직장인 음주행위의 선행요인과 반생산적 업무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28(3), 1-25.
- 이정복(2014, 10, 29). 건양대 “놀이 마시는 축제는 No”. 대전투데이.
- 이정훈, 양난미, 이명신(2013). 대학생의 자기분화와 데이트 언어폭력의 관계: 문제음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6), 3653-3672.
- 이종익(2013, 5, 10). 단국대 천안캠퍼스 축제기간 ‘금주’. 뉴스스.
- 이지현, 최홍일(2010). 대학생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문제 음주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음주 거절 효능감과 폭음을 매개로. **한국청소년연구**, 21(4), 229-246.
- 전경숙, 이효영(2010). 우리나라 남녀 성인의 폭음 및 문제음주 영향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7(1), 91-103.
- 정슬기(2007). 여자 대학생의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7(2), 505-513.
- 정원철(2006). 대학생의 문제성음주의 실태와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8(1), 347-372.
- 제갈정(2011). 대학생의 음주실태와 개선방안. 제36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보건학종합학술대회**, 2011, 42.
- 진미석(2013). 수도권 및 지방대학생 핵심역량의 격차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1), 105-127.
- 천성수, 손애리, 송창호, 이주열, 김선경(2003). 대학생폭음에 의한 폐해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전국 60개 대학교 조사결과. **한국알코올과학회지**, 4(2), 119-135.
- 최명숙, 임미영, 윤영미(2002). 한국 대학생의 음주행위 예측모형의 성별 비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1), 77-88.
- 최성욱(2014.5.6). 대학축제 이젠 바꾸자. 연예인 구경에 술 마시는 축제. 한국대학신문.
- 최인진(2013.3.27). 가천대 ‘교내 음주 3번째 제적’ 학칙 논란. 경향신문.
- 홍다솜, 양난미(2013). 대학생의 음주동기와 음주정도의 관계에서 예방행동전략의 매개효과. **한**

국심리학회지 : 일반, 32(4), 931-948.

- 홍세희(2013). Program2 구조방정식 모형: 중급,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서울: S&M 리서치 그룹.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2001). Self-efficacy beliefs as chapters of childrens' aspirations and career trajectories. *Child Development*, 72(1), 187-206.
- Bridgeman, B., & Wendler, C. (1991).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ors of college mathematics performance and in college mathematics gra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3(2), 275-284.
- Campbell, T. A., & Campbell, D. E. (1997). Faculty-student mentoring program: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reten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8, 727-742.
- Carroll, A., Houghton, S., Wood, R., Unsworth, K., Hattie, J., Gordon, L., Bower, J. (2009).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ustralian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aspirations and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ce*, 32, 797-817.
- Chaloupka, F. J. & Wechsler, H. (1996). Binge drinking in college: The impact of price, availability, and alcohol control policies.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16, 112-124.
- Chemers, M. M., Hu, L., & Garcia, B. F. (2001). Academic self-efficacy and first-year college student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3, 55-64.
- Choi, N. (2005). Self-efficacy and self-concept as predictors of colleg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2, 197-205.
- Conger, D., & Long, M. C. (2008). Why are men falling behind? Explanations for the gender gap in college outcomes. Prepared for the Texas Higher Education Opportunity Project Conference, Princeton, NJ.
- DeBerard, M. S., Spielmans, G. I., & Julka, D. C. (2004).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retention among college freshmen: A longitudinal study. *College Student Journal* 38(1), 66-80.
- Engs, R. C., Hanson, D. J., & Diebold, B. A. (1996). The drinking patterns and problems of

-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1994. *Journal of Alcohol and Drug Education*, 42(3), 13-33.
- Greene, B. A., Miller, R. B., Crowson, M., Duke, B. L., & Akey, K. L. (2004). Predicting high school students' cognitive engagement and achievement: Contributions of classroom perceptions and motiva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9, 462-482.
- Holmila, M., & Kirsimarja, R. (2005). Gender differences in drinking: Why do they still exist? *Addiction*, 100, 1753-1769.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 Jonson-Reid, M., Davis, L., Saunders, J., Williams, T., & Williams, J. (2005). Academic self-efficacy among African American youths: Implications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 *Children & Schools*, 27, 5-14.
- Keller, D., Crouse, J., & Trusheim, D. (1993). Relationships among gender differences in freshman course grades and course characteristic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702-709.
- Kitsantas, A. (2013). Fostering college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with learning technologies. *Hellenic Journal of Psychology*, 10, 235-252.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Lloyd, J. E. V., Walsh, J., & Yailagh, M. Sh. (2005). Sex differences in performance attributions,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in mathematics: If I'm so smart, why don't I know it?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8, 384-408.
- Multon, K. D., Brown, S. D., & Lent, R. W. (1991).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0-38.
- Mumenthaler, M.S., Taylor, J.L., O'Hara, R., & Yesavage, J.A. (1999). Gender differences in moderate drinking effects. *Alcohol Research & Health*, 23, 55-64.
- Nolen-Hoeksema, S. (2004).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and consequences for alcohol use and proble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2004), 981-1010.
- Pascarella, E.T., Goodman, K.M., Seifert, T.A., Tagliapietra-Nicoli, G., Park, S., & Whitt, E. J. (2007). College student binge drinking and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8(6), 715-727.
- Peters, M. L. (2013).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classroom climate, self-efficacy and

-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mathematics: a multi-lev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11(2), 459-480.
- Powell, L. M., Williams, J., & Wechsler, H. (2004). Study habits and the level of alcohol use among college students. *Education Economics*, 12(2), 135-149.
- Rau, W., & Durand, A. (2000). The academic ethic and college grades: Does hard work help students to "make the grade"? *Sociology of Education*, 73(1), 19-38.
- Terry, K. P., & Doolittle, P. E. (2008). Fostering self-efficacy through time management in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Interactive Online Learning*, 7, 195-207.
- Voyer, D., & Voyer, S. D. (2014). Gender differences in scholast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40, 1174-1204.
- Wechsler, H., Dowdall, G.W., Davenport, A., & Castillo, S. (1995). Correlates of college student binge drinking.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5(7), 921-926.
- Wechsler, H. & Nelson, T. F. (2001). Binge drinking and the American college student: What's five drinks? *Psychology of Addictive Behaviors*, 15(4), 287-291.
- Whatley, J. J. (2005). *Predicting binge drinking amo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OK, USA.
- Williams, J., Powell, L. M., & Wechsler, H. (2003). Does alcohol consumption reduce human capital accumulation? Evidence from the College Alcohol Study. *Applied Economics*, 35(10), 1227-1239.
- Wolaver, A.M. (2002). Effects of heaving drinking in college on study effort, grade point average, and major choice. *Contemporary Economic Policy*, 20(4), 415-428.
- Zajacove, A., Lynch, S. M., & Espenshade, T. J. (2005). Self-efficacy, stress, and academic success in college.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6, 677-706.
- Zimmerman, B. J. (1995).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development. In A. Bandura (Ed.),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pp.202-231).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 논문접수 2015년 5월 6일 / 1차 심사 2015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5년 6월 19일

* 전재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와 국제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교육정책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aejon@semyung.ac.kr

* 신윤정: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 심리학을 복수전공하고,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에서 임상 및 상담 심리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퍼듀대학교 상담심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학습·상담 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yshin@uos.ac.kr

* 김희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및 고등교육학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yunny4u@gmail.com

Abstract

The Impact of Korean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by Gender: Academic Negligent Behavior as a Mediator*

Jon, Jae-Eun**

Shin, Yun-Jeong***

Kim, Hee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Korean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with academic negligent behavior as a mediator. Using the 8th wave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at th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e examined and compar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drinking behavior,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negligent behavior by sex. Findings showed that the mediator effect of academic negligent behavior was same for both sex, but the level of the mediator effect differed. Specifically, female students showed the lower level of increase in academic negligent behavior with increase in academic self-efficacy, as well as the lower level of increase in academic negligent behavior with increase in drinking behavior, compared to male students. However, female students showed the stronger negative impact of academic negligent behavior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male studen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cludes providing the structural mechanism on how college student' drinking has a negative impact on academic achievement as well as supporting the previous literatures which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tudying sex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 drinking. Policy implications included the eminent need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to provide guidance and implement policy for college students' responsible drinking without disturbing their academic study.

Key words: college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sex differences, academic neg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higher education

* This paper has been presented at the 8th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Conference in 2015.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 M.A., Korea University